

원·하도급부문 포함 소득표준을 인하

국세청은 표준소득율을 조정하여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원·하도급에 관계없이 일제히 5%를 내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득표준을 인하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일반건설업은 전혀 인하된 게 없어 대조를 이루었다.

[편집자註]

국세청이 원·하도급부문 대해 전문건설업 소득표준율을 인하한 것은 대한설비공사협회(회장 박인구)가 끊임없이 추진해온 노력의 결과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될 전문건설업 소득표준율을 원·하도급부문 모두 전반적으로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극도의 불황을 겪고 있는 설비건설업계는 어느 정도 불황에서 탈피할 것으로 본다.

전문건설 하도급 소득표준율은 지난 81년 7.0%로 책정된 이래 89년까지 10여년간 인상만 되었을 뿐 인하될 줄 모를 정도로 국세청은 건설업계의 경영난 악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2년에는 0.7% 포인트를 상향조정하여 7.7%로 책정하는 등 소득표준율 인하를 외면해 왔었다.

그런데 지난해 이어서 또다시 올해 인하가 이루어진 것은 대한설비공사협회 박인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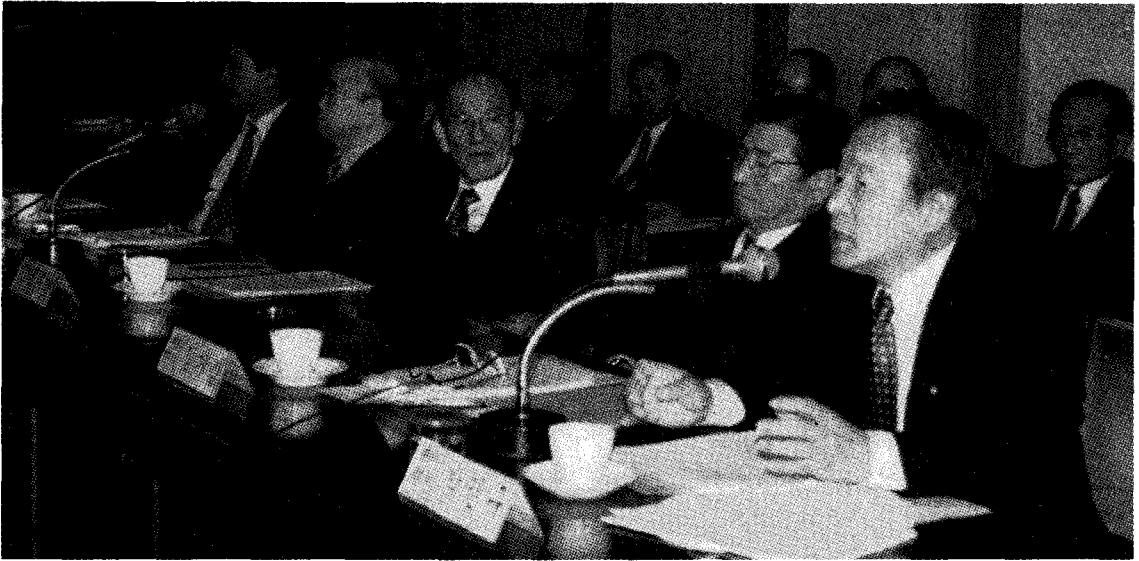
대한설비공사협회 박인구 회장은 추경석 건교부장관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인하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의 끊임없이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건축·토목 등 일반건설공사업은 그대로 됐으면서도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원·하도급공사 모두 전반

적으로 인하해 줬다는 것이다.

설비공사업계는 지난 95년 9월 13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경제 회의에서 전문건설업 소득표준율 인하를 공식 발표된 이래 지난 2월 28일



박인구 회장, 지난 1월 24일 신한국당 김종호 정책위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문건설 소득표준율 인하 건의

개최된 대한설비공사협회 제 14회 정기총회에서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치사를 통해 이를 다시 확인하기까지 여러 차례 진행된 약속을 이번에 이행한 것으로 믿고 있다.

추경석 장관은 대한설비공사

협회 정기총회에서 치사를 통해 「설비건설업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왔다」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

고, 원도급자가 받은 공사대금은 하도급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건설어음의 재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표준율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문건설 소득표준율 인하내용

업종분류	1995년	1996년	인하폭(%)
상하수도설비공사	12.1	11.5	5.0
배관난방공사	9.3	8.8	4.9
기타설비공사	8.2	7.8	4.9
전문건설하도급	6.9	6.6	4.3
미장방수공사	8.3	7.8	6.0
도장·도배	13.7	13.1	4.4
의장공사(목공사)	10.9	10.3	5.5
지붕판금공사	9.0	8.6	4.4
굴진공사	9.3	8.6	7.5
토공사	8.2	7.8	4.9
굴정공사	8.2	7.8	4.9
철골 및 철근공사	8.2	7.8	4.9

유리공사	8.2	7.8	4.9
창호공사	8.2	7.8	4.9
비계공사	8.2	7.8	4.9
철근콘크리트공사	8.2	7.8	4.9
수중공사	8.2	7.8	4.9
조적공사	8.2	7.8	4.9
포장공사	8.2	7.8	4.9
보링그라우팅공사	9.0	8.5	5.6
석공사	8.2	7.8	4.9
통신공사	8.2	7.8	4.9
전기공사	9.3	8.8	5.4
3년초과 건설기계	15.8	15.0	5.1
3년이하 건설기계	22.4	21.2	5.4